



2017년 5월 14일(제823호) 부활 제5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천국으로 오르는 등산로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 설악산에 오르는 코스는 참 많습니다. 소공원의 간단한 산책 코스부터 시작하여 흔들바위를 구경하는 코스도 있고, 울산바위, 금강굴, 용소폭포 등 절경을 보기 위한 코스도 있습니다. 등산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정상을 향한 코스역시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색에서 출발하여 대청봉에 오르는 코스부터 시작하여, 백담사에서 시작하는 코스, 한계령에서 시작하는 코스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등산의 목적과 요구되는 난이도에 따라 등산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거대한 산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산의 목적은 여러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등산로도 목표지도 달라지겠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느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 뿐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역시 오직 하나,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보인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산 정상을 오르는 가장 쉬운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오르는 등산로’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나보다 앞서 천국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지금 내 다리가 아프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된 정상이 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정상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선사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주,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거리(다니엘) 신부  
백두산(육군 제21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6,1-7

회 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 시

1베드 2,4-9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요한 14,1-12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진리를 살다

미사진례 인에서의 하느님 말씀(1) - 말씀의 식탁

예수님 자신은 당신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마르13,31)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말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알리십니다. 특별히 당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인간의 말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에 참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인간이 진리와 생명, 희망의 미래를 얻는지는 온전히 이 말씀을 듣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요한 5,24)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놀랄 만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당신의 친척이자 형제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루카 8,21) 왜냐하면 그들은 내적으로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삶은 진리를 향한 통찰과 힘,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기도에서 삶의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 계시의 말씀에서 삶의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요한 6,68)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이에 지상의 모든 가톨릭교회 주교들의 모임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풍성한 성경에서 샘을 퍼냄으로써 교회를 쇄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식탁은 신자들에게 풍성하게 차려져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계시 현장(하느님의 말씀: Verbum Dei) 21항은 “교회는 특히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례현장도 35항에서 “전례 거행에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고 더욱 적합한 성경 봉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51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방향을 세웁니다. “하느님 말씀의 더욱 풍성한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도록 성경의 보고를 더 활짝 열어, 일정한 햇수 안에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백성에게 봉독되어야 한다.” 이 방향지침이 오늘날 새로운 다양하고 풍성한 독서주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한 전례개혁은 주일과 축일의 전례 안에서 성경 독서의 확장과 새 배열을 통하여 신앙과 교회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신자들이 하느님 계시의 말씀의 중요한 단락들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례시기를 주일은 3년 주기로, 평일은 2년 주기로 하여 주일과 축일들에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이 선포되도록 배정하였습니다. (지침 65항) 현행 미사 독서의 특성은 독서 본문의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들어 있는 하느님 말씀을 다양하고 풍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계시 진리를 폭넓게 깊이 알아들으며, 잘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전례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 외에도 다양한 사목 환경과 요구에 맞추어 여러 종류의 말씀 전례용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독서 본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시 발췌』

복 음 록 상



- 베아틸(비드로) 신부 / 예수회

꽃 심는 이

그대 가는  
그 길이  
고운 꽃길  
되라고

먼저 가  
꽃을 심는  
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 가는  
그 길이  
고운 꽃길  
되라고.

상화이야기

산 지오베 재단화



베네치아의 산 지오베 성당을 위해 제작된 이 제단화는, 실제 성당의 건축물과 흡사한 모습으로 그림 속 공간을 그려 넣어(그림 속 건축물 기둥과 똑같은 기둥이 그림을 감싸고 있었다) 신자들은 성당의 한 공간의 실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였던 신성한 대화(sacra conversazione)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성당 안에서 기도하던 신자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성인들이 고요한 기도 속에서 나누던, 천상의 신성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목상을 더욱 쉽게 만들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오상을 보여주시는 맨 왼쪽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다.

한 손은 우리에게 뺏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당신 옆구리의 오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 그림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성인들의 두상의 높이의 차이가 가져오는 삼각형, 천사들이 배열된 구조,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에게서 지속해서 보이는 삼각형 모티브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추구하고 있는 균형과 안정, 그리고 영원성(eternal)을 표현하기 위한 대한 화가의 고민 흔적을 잘 보여준다.

벨리니 (1430-1516)  
1487년 작, 캔버스 위 유화, 471 X 258 cm  
아카데미아 미술관, 이탈리아 베네치아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교본단 송영옥 신부

◆ 교구장 동정

- 총용(8군단)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14일(주일)
- 회의  
때: 5월 16일(화)  
국장회의: 11:00, 참사회의 14:00, 사제평의회 16:00
- 2017년 입대 군종장교 훈련 위문  
때·곳: 5월 17일(수) 11:00, 학생군사학교
- 준·부사관 격려 방문  
때·곳: 5월 17일(수) 18:00, 육군부사관학교

◆ 통일기원 성모의 밤

때: 5월 20일(토)  
곳: 제22사단 동해(육군) 성당

◆ 군종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목요일 20:00, 용산 군종교구청  
문의: 김범휴 빈첸시오 010-4521-8194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